

결핵이 작가들의 창작 원천이었을까?

글 박연숙(본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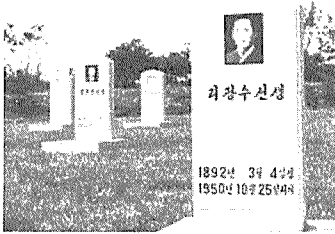
미국 최고의 작가이자 예술평론가인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그의 저서 <은유로서의 질병>(원제 Illness as Metaphor)에서 “질병은 질병이며, 치료해야 할 그 무엇일 뿐”임에도 재환의지를 꺾는 낙인, 은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도 폐결핵으로 사망했지만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 환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결핵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우려했을 터이다. 많은 질병이 부정적인 의미로 은유되고 있는 반면 문학과 결핵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핵은 문학의 자양분이 되는 ‘무엇’으로 은유되고 있다.

그는 토마스 울프의 <때와 흐름에 관하여>를 예로 들어 결핵이 아름답게 승화되는 사랑, 병적인 사랑, 소모되는 열정의 병 등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아름다운 죽음과 사랑을 노래하는 문학작품에는 꼭 결핵이라는 병을 앓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등 인격을 영묘하게 만들어 주며 의식을 확장시켜 주는 은유를 지닌다고 했다. 이러한 은유는 때로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드러나기도 한다. 카프카가 자신의 병을 ‘정신의 병이 넘친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일례다.

당대의 많은 작가들이 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하거나, 결핵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으로 일생 동안 결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심정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정, 이상, 이광수 등이 그런 케이스다.

1920년 ‘개벽’에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작가의 길로 접어들었던 김유정은 ‘봄봄’, ‘동백꽃’ 등 문학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썼다. 그런 그가 1937년 29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진 사실이다.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그는 가난과 병에 시달리다가 쓸쓸히 죽어갔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 2004년에는 김유정역이 생기기도 했는데 경춘선 신남역이 ‘김유정역’으로 바뀌게 된 것. 더불어 김유정 문학관을 설립하고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는 공간을 재현하는 등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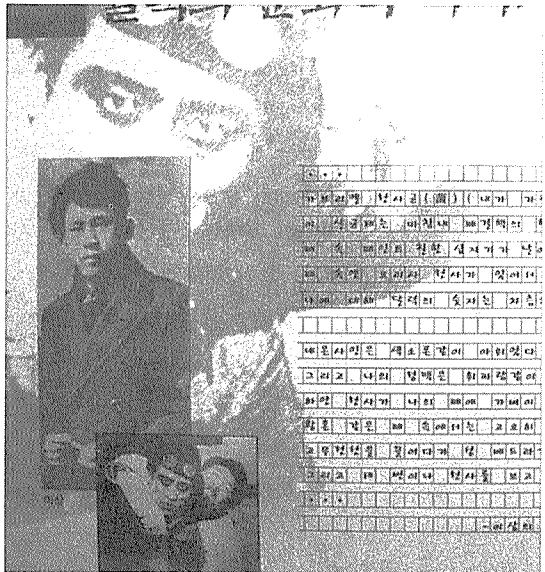
김유정과 친분관계를 넘어선 정신적 교류를 이어왔던 천재시인 이상도 결핵으로 사망했는데, 함께 폐결핵을 앓고 있는 김유정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경춘선 신남역이 '김유정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유정은 결핵으로 세상을 등진 대표적인 작가로 춘천에는 그를 기리기 위한 김유정 문학촌이 있다.

남북·월북 인사들이 안치된 재북 인사릉 내 이광수의 묘

서울대 병원 의학박물관에 전시된 결핵관련 전시물 중 '결핵의 문학적 이미지'. 사진 속의 작품은 이상의 것.



그는 작품에는 그가 앓고 있던 '결핵'이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때문인지 그의 작품을 '결핵의 문학'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작품 '봉별기'에서는 스물세 살인 주인공이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폐결핵 약을 지어듣고 영양차 온천으로 갔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고 이별하게 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의 작품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사랑'과 '죽음'은 그에게 있어 결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제들이다.

작년 7월, 각 신문사에서는 '이광수 결핵 사망'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사망 오십년이 훨씬 지난 그의 결핵사망설은 그동안 국내에서 6.25 전쟁 당시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었던 데에 대한 확인인 셈이다. 그의 사인이 밝혀진 것은 평양, 백두산 등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에 참가한 국내 작가들이 평양 외곽에 위치한 재북인 사롱을 들른 자리에서다.

그는 '흙', '무정' 등 주옥같은 소설들을 남겼는데, 무정 집필 당시에는 폐결핵이 심해 치료를 받던 중 훗날 아내가 된 허영숙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그가 허영숙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기지 못한 채 요절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한다.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는 1884년 모스크바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학도였다. 44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한 그는 "의학은 본체이고 연극은 정부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의 소설 '6호 병동'은 한 의사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그가 사망한지 100주기가 지났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매기', 를 비롯해 '바나 아저씨', '세 자매', '벚꽃동산' 등이 연극 무대에서도 꾸준히 공연되고 있다.

당대의 천재적인 문학, 예술가들이 유독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결핵을 '정신적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문학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정신적인 갈등과 고뇌가 역작을 낳게 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문학가들이 우연찮게 결핵에 걸리게 된 것인지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어쩌면 결핵이 발병하는 외부 조건의 특성상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습작을 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이를 틈 타 결핵이 발병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결핵을 가난의 산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러나 수전 손택의 말대로 '병은 병'일 뿐, 그에 어떠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낙인을 찍거나 신비화하는 것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오늘날의 '암'처럼 결핵이 고치기 힘든 병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 결핵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卍